

코로나19 위험도 2주째 '높음'... "늦가을새 유행 올 수도"

비수도권 6주만 매우높음→높음 하향 조정 감염재생산지수 0.78...3주 연속 1미만 유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내는 가운데 주간 위험도가 2주째 높음 수준을 나타냈다.
전과력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
방역 당국은 오는 6월까지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겠지만 새 변이 출현과 백신 접종 면역력

감소 등으로 늦가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주간 코로나19 위험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과 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2주째 '높음'으로 평가됐다. 비수도권은 6주 만

에 '매우 높음'에서 '높음'으로 하향 조정됐다.
방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만명대까지 감소했지만 아직까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행은 확인한 감소세로 전환한 상태.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3월3주 이후 4주간 감소 중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78로 1 미만을 유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3월5주 0.91→4월1주 0.82→4월2주 0.78로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역제를 의미한다.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지난주 대비 각각 1.9%, 16.9% 감소했다.
전국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48.5%, 준-중환자실 가동률은 52.6%로 의료체계 부담도 완화되는 추세다.
거리두기 해제 및 점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달 하순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방역 당국은 전망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분간 이런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5월 하순 또는 6월까지도 감

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인구집단에서의 면역력 감소와 알 수 없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 위험성도 충분히 있다"며 "늦가을 무렵에는 새로운 유행 또는 환자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얼마나 증가할지는 아직은 좀 더 수학적 인 계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확진자 지표 감소는 긍정적이지만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등의 중증·사망 위험을 우려한다"며 "예방접종 시행 등 감염취약계층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화정아이파크 붕괴 98일째...수습·피해 보상 난항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가 98일째를 맞았지만 현장 위험물 해체, 안전 진단, 건물 철거·재시공 등 후속 수습·지원이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무너진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건물에서는 잔존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 안팎 곳곳에 막대한 철근·콘크리트 잔해물이 남아 있는 상태다.
공사사 현대산업개발은 고용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심의를 거쳐 지난달 3일부터 8일 동안 201동 서측 대형 콘크리트 잔재물을 제거하고 반출했다.

이어 해체 공정에 투입할 타워 크레인을 설치, 지난 5일 붕괴 직후 방치된 상층부 RCS 갱폼(거푸집)을 해체했다. 지난 12일에는 해체 작업 감리자가 지정됐다.

또 이달 말까지 최상층에는 건축물 보수 장비인 BMU(Building Maintenance Unit) 곤돌라가 설치된다. 곤돌라에 탄 작업자와 타워 크레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구조물 견인·절삭·하역 등 해체 공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20일부터는 사고 직후 홀로 위태롭게 서 있는 201동 남측 외벽과 동측 기둥을 해체한다. 동쪽 33~38층, 남쪽 36~38층, 동쪽 26~32층, 남쪽 26~35층 순서대로 다이아몬드 와이어 톱과 절삭기 등을 이용해 구조

붕괴 잔해 해체 '한창'...이르면 6월 말 끝나

물을 절단한 뒤, 타워크레인을 통해 꺼낸다.
이르면 6월 30일까지 201동 건물 내 붕괴 잔해·잔존 구조물 등 위험 요소를 모두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건축물 안전만 확보되면 구조물 안전 진단이 진행된다. 현재 입주 예정자들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공신력 있는 안전 진단 이후 전면 철거·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

이에 서구는 광주시·국도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신력 높은 정밀안전진단업체 선정에 나선다. 안전진단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의 참여를 추진, 신뢰성 높은 진단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8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 진단의 결과에 따라 철거 대상 선정, 방법 등 구체적 안이 결정된다.

철거 범위·일정이 결정된다고 해도 길은 멀다. 39층 규모 201동 1개 동만 완전 철거하기까지는 17~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버스터미널, 중심 상권이 밀집해 있는 도심 한복판인 만큼 무사히 철거 공사를 마치기까지 숏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붕괴 사고 이후 신축 공사가 무기한 중단된 화정아이파크 1·2단지 아파트·오피스텔 입주 예정자 847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입주예정자들은 공정·공법이 '쌍둥이' 격인 1·2단지를 모두 전면 철거·재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구청과 현대산업개발은 정밀 안전 진단 결과 등 명확한 근거에 따라 철거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를 대신해 공사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연대 보증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다만 입주 지연에 따른 중도금 대출 납부기한 연기, 입주 예정자 개별 세대 요구사항 반영 검토 등 협의가 진행 중이다.

입주 예정자마다 주택 구입 계획, 주거 이전 비용 등이 각각색인 만큼, 2년 넘게 걸리는 철거 기간 중 입장이 엇갈릴 것으로 점쳐진다.

현장 주변 피해 상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영업 손실 보상 접수는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

전체 피해상가 131곳 중 40곳이 '절차와 보상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 유예, 영업 손실 보상 일수 6개월 이상 반영, 상가 건물 안전 진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머지 상가 91곳은 보상 신청을 마치거나 합의를 마쳤다.

서구청은 이날 광주를 방문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면서 ▲입주예정자 대상 은행권 대출 규제 해소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 차원의 정밀안전진단 업체 선정·관련 기준 마련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 참여 등을 건의했다.

윤창현 인수위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정을 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 특히 피해 상인과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역력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기동취재본부

아내 수입 ↑...男 "문제 안돼" 女 "부자연"

결혼을 준비 중인 미혼들은 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미혼 남성은 절반 이상은 '긍정적'이었다. 여성들은 4명 중 3명 이상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라가 재혼전문 결혼정보업체 온리유와 공동으로 지난 11~16일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남녀 528명(남녀 각각 2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19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남성은 55.3%, 여성은 23.2%가 '자랑스럽다'(남성 16.3%·여성 6.1%) 또는 '문제될 것 없다'(남성 39.0%·여성 17.1%)와 같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자연스럽다'(남성 36.7%·여성 46.2%)와 '결혼할 필요를 못 느낀다'(남성 8.0%·여성 30.6%) 등과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남성 44.7%, 여성 76.8%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대답 순서를 보면 남성은 '문제될 것 없다', '부자연스럽다', '자랑스럽다', '결혼할

필요를 못 느낀다' 등의 순이었다. 여성은 '부자연스럽다', '결혼할 필요를 못 느낀다', '문제될 것 없다', '자랑스럽다'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 평등이 진전되면 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도 남녀 간에 의견은 엇갈렸다.

남성은 '다소 그렇다'고 대답한 비중이 3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별로 그렇지 않다(31.4%) ▲매우 그렇다(22.0%) ▲전혀 그렇지 않다(12.5%)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여성들은 3명 중 1명 이상인 35.2%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다소 그렇다'(30.7%)와 '전혀 그렇지 않다'(23.1%), '매우 그렇다'(11.0%)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의 56.1%와 여성의 41.7%는 '매우 그렇다'와 '다소 그렇다' 등과 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남성의 43.9%와 여성의 58.3%는 '별로 그렇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와 같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슬비기자

광주 차량정비소서 불...3억5000만원 피해



광주 도심 차량정비소에서 불이 나 3억 대 재산 피해가 났다.
18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7시 10분께 광주 동구 학동 한 수입차 전문 차량정비소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44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2층 규모 정비소 250여㎡와 수입차 등 차량 4대가 타거나 그물러 소방서 추산 3억 5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진화 작업에는 살수차 등 장비 28대와 대원 100여 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